

보도시점

2026. 9. 16.(수) (별도공지)

배포 2026. 9. 16.(수)

기후·에너지·환경 협력을 위한 한-중앙아시아 협력 정책구상 발족

-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 5개국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최초의 협력체계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과 ‘한-중앙아시아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구상(이니셔티브)’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가진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로, 중앙아시아의 성장 수요와 우리나라의 공급망 다변화 및 시장 확대 전략을 연계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정책구상에는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호혜적 협력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탈탄소 녹색전환, △대기질 개선·안정적인 물 공급·폐기물 관리 등 환경개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정책 수요와 연계한 협력 과제를 폭넓게 담았다.

협력 방식도 정책·인적 교류에서 공동연구, 기술협력, 기반시설 개발까지 다양하게 구성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 공동 시범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후속사업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정책구상이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에 명시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정상 차원의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각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구상은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각국 간 양자협력을 넘어 공동의 기후·에너지·환경 과제를 중심으로 역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틀을 처음 마련한 것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아시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우리 기업 진출,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확보 등 향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중앙아시아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큰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책·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이번 한-중앙아시아 협력 정책구상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책과 기술이 중앙아시아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주 기회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한-중앙아시아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구상.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환경개발협약팀	책임자	과 장	유용호 (044-201-6971)
		담당자	사무관	신영훈 (044-201-6972)



□ 체결개요

- (체결시기) 2026.9.16.(수)
- (체결국)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6개국

□ 주요내용

- (협력 분야)
 - (재생에너지 및 전력시스템) 청정·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원의 전력망 통합, 전력시스템 유연성 제고 및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 등
 - (환경개선 및 기후회복력) 대기질 개선, 깨끗한 식수 공급, 폐기물 관리, 생물다양성, 훼손지 복원, 사막화 방지 및 기후변화 적응
- (협력방식) 인적교류, 역량강화, 인프라 개발, 공동연구, 우수기술·사례 실증 및 시범사업 이행, 기술이전 및 투자 촉진, 제도적 협력,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등
- (이행수단) 상호 호혜적 글로벌 파트너십 및 지속가능한 재정협력 등

□ 의의

-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와 기후·에너지·환경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최초의 정책구상(이니셔티브) 중앙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포괄적 협력 틀 마련